

사실상 엔데믹 선언...기대와 우려 교차

“대유행 없을 것” 낙관 VS “각자도생” 우려 “백신·치료제 활용 고위험군 보호책 필요” 상병수당 등 ‘아프면 쉴 권리’ 보장도 강조

오는 6월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일상의 불편함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일 1만명 넘는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앞으로 사실상 ‘각자도생’이 될 공산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에 걸리는 중증·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책,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14일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로 관리할 때가 됐다는 의견과 유행 확산세를 고려하면 일상회복 수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천은미 목동이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미) 대부분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중증도도 낮아졌다”며 “일반인들은 대부분 한번씩 감염된 이력이 있어 (자연면역 형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독감처럼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변이와 면역력 감소 현상으로 인해 1년에 두 번 정도 (코로나19) 유행이 왔다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전처럼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 지 않고 1만명대에서 3만~4만명대로 증감하는 현상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만명 넘게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난 3년 동안에도 일상회복을 예고했다가 대유행이 닥쳐 무산됐던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처럼 거리두기를 하거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원 수석상임연구위원도 “최근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확진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백신과 감염으로 형성된 ‘하이브리드 면역’도 5~6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오미크론 계열이 아닌 신종 변이가 나온다면 효과적인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경각심이 흐트러지면 가을 재유행 규모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당뇨, 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층이 의료기관에서 감염될 우려도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스스로를 돌보며 ‘각자도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미 코로나19 일상회복을 결정할 만큼 코로나19에 걸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은 오는 10~11월 연 1회 접종하는 전략으로 바꿨으며, 고위험군인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중 의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임종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결국 고위험군을 어떻게 보호하고 중환자·사망자를 줄일 것인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만약 올 가을 중환자가 많이 생길 경우 일반의료체계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백신접종 등 고위험군 보호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위험군이기에 때문에 결국 폐렴이나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독감에 걸리면 치료제 ‘타미플루’를 100% 가까이 처방하는 것처럼 코로나19도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꼭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아프면 쉴 권리’를 더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환자가 아프는데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느라 병이 악화되거나 감염병이 추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천은미 교수는 “아플 때 집에서 쉴 수 있는 걸 지켜줄 수 있게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교수 역시 “상병수당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아픈 환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질병관리청은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해 “각 부처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형성과 제도화 노력에 힘쓰고 있다”며 “아프면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및 연차 휴가를 활용하도록 안내·홍보하는 등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신입경찰 인성교육 강화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지난 제57회 여수 거북선축제 기간인 5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교육원 실습합정 ‘바다로함’ 공개행사를 무사히 마쳤다고 9일 밝혔다.

김재환기자



무안경찰, 초당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자살방범대 위촉식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는 지난 9일 김정완 무안경찰서장, 초당대학교 국제교류원 센터장 박상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대 유학생 20명에게 외국인 자살방범대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나주경찰, 이장단협의회 교통안전 교육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9일 나주시 다시면 문화복지센터에서 다시면장 및 이장단 50여 명을 대상으로 농번기철 보행사고, 이륜차,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강진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 실시

강진경찰서(서장 권석진)는 최근 금융기관 중사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진관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담양소방, 119시니어 소방단 조직운영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주택·임야 화재예방을 위한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119시니어 소방단’을 조직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해경, 국민과 함께 활락-종포해양공원 포토존 설치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여수 종포해양공원에 경비함정 모형과 해양경찰 캐릭터(해누리, 해우리)를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 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5·18 43주기 맞아 ‘5월 정신계승 노동자 대회’

민노총, 조합원 4000여 명과 결의대회



1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43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맞아 광주에서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갖고 “불의에 맞선 선배 민주열사들의 뜻을 계승해 윤석열 정권 퇴진

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1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43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 노동

자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민중의례, 대회사, 투쟁사, 연대사, 공연,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5·18 당시 숨진 민주영령들을 추모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43년 전 독재정권이 만든 갈림길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5·18 당시 항쟁에 참여했다가 숨진 노동자 출신 열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 물러난 군사독재의 자리에 지금은 검사독재가 자리잡았다”며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권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라며 노동자들을 독려했다.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 정

권 퇴진 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5·18)민중 학살 주범 전두환을 미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개사과’ 사진으로 조롱했다”며 “집권을 위해 5·18을 이용하다 대통령이 되자 ‘북한개입설’, ‘헌법 전문수복 반대’ 등 망언을 내뱉은 인사를 주요 직책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권은” 자본가의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착취에 저항하는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사용자의 처벌불원단원서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양화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은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주의의 사수, 폭압에 맞선 결연한 투쟁, 민중의 결심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주 정신”이라며 “산화한 열사들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김재환기자



2023 서울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

14일 서울 마포구 망원수상훈련장 인근 한강에서 열린 2023 서울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 참가자들이 물살을 가르고 있다. 이번 대회는 13일부터 이틀

간 총 7차례의 레이스로 진행됐다.

광주시, 30년 넘은 노후 교량 정밀 점검

안전등급 C등급 대상

광주시중합건설분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16일까지 30년 이상 경과·안전등급 C등급인 교량 5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226곳의 교량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 달 5~12일 보도가 있는 교량 98곳을 1차 점검했다.

이어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보도가 있는 슬래브 교량 33곳을 2차 점검했다.

토목구조 전문가 등 합동으로 정밀 점검을 한 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백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노후 교량 안전점검,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한 도로와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